

## 〈 설 교 〉

### “감사로 드리는 제사”

조금만 참으면 지나가겠지 하던 코로나가 1년9개월을 넘어 2년을 향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견딜만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코로나는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를 주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정서적으로 메마르고 우울감이 들고 육적으로 피로도와 스트레스가 쌓이고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보다 조금씩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코로나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과 원망의 시간들을 보낸 것 같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서로 비난하며 서로 갈등과 대립속에서 서로 상처를 주고 아픔만이 가득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배가 힘들어지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감사를 잃어버린 예배가 되었고 사사기 때처럼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데로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시50:23)**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있다면 그것을 바로 감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불평으로 원망으로 체면상, 형식적으로 드러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저마다 시대적으로 힘든 환경 속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되 무기력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풍성한 감사의 제목으로 드리는 예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코로나라는 질병을 걸리지 않기 위해 우리는 백신을 맞는 것처럼 불평과 원망이 넘쳐날 때 우리는 감사라는 백신을 맞아야 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은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영적질병의 증상이기 때문입니다. **담후3:1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3:2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오늘도 우리는 추석명절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서로 감사의 제목을 나누며 절망적 환경속에서도 감사의 제목을 찾음으로 우리의 가족들이 다시금 영적으로 소생케 되는 복된 추석연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2021년 9월 21일(화)

하나님과 동행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드리는

# 추석 가정예배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옮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편 5:23



하나님과 화목 · 공동체와의 화목 · 세상과의 나눔



#### 섬기는 이들

담임목사\_ 김봉철  
사역간사\_ 안준호  
신디사이저\_권민서

전도사\_ 김승현  
시온찬양대 및 2부(11시)반주\_ 김지연  
드럼\_ 김우식, 김요엘

휴무전도사\_ 김동화  
일렉기타\_ 안준호

우)18611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상신하길로 298번길 7-7 연세프라자8층 801-802호  
☎\_031.353.3104 / FAX\_031.353.3104 / HOME PAGE\_www.moolga.org  
협력사역\_더불어작은도서관/더불어문화센터/더불어진로코칭센터/세네라미심리상담소

## ☪ 추석가정에배 ☪

### 1. 예배의 선언 ..... 인도자

추석명절을 맞아 가족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해를 하나님께 맡기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 2. 사도신경 ..... 다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 3. 찬 송 ..... 예수사랑하심을(찬563장) ..... 다같이

1. 예수 사랑 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권세 많도다
2.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3.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4.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 가는 날 천국가게 하소서  
〈후렴〉 날 사랑 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 4. 기 도 ..... 가족대표

\* 가족대표가 흠어졌던 가족을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가족들이 명절을 통하여 더욱 화목하고 사랑으로 넘치는 가족이 되게 해달라는 내용으로 기도합니다

### 5. 성경말씀 ..... 시편 50편 21절-22절 ..... 다같이

- 50:22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 50:23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 6. 말씀선포 ..... 말은이

\* 인도자가 뒷면 설교란을 천천히 읽습니다.

### 7. 나눔과 적용 ..... 다같이

\* 나눔질문을 통해 가족들 한사람씩 지혜롭게 나눔과 적용으로 은혜나눔니다.

나눔질문) 코로나 상황속에서도 감사한 일을 하나씩 나누어 봅시다.

### 8. 합심기도 ..... 다같이

각 자가 나눈 나눔의 적용을 위해서 함께 합심기도를 합니다. 기도예 익숙치 않으면 인도자가 주신말씀을 가지고 축복의 기도를 해 주셔도 좋습니다.

### 9. 찬 송 .....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잇고(찬559장) ..... 다같이

1. 사철에 봄바람 불어잇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민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집 즐거운 동산이라
2.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를 사랑에 뭉쳐잇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3.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후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 하루

### 10. 주기도문 .....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